

IT산업 수출입 동향

1월 IT수출, 69.6억 달러로 38.3% 감소

2009년 1월 IT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IT 소비 위축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1월 IT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38.3% 감소한 69.6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IT 수입은 40.9억 달러로 36.9%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전체산업 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28.7억 달러흑자를 기록하였다.

주요 품목별로는 휴대폰 22억 달러, 패널 12.4억 달러, 반도체 15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국가별로는 EU 10.1억 달러, 미국 11.8억 달러, 일본 3.9억 달러, 중국 24.9억 달러, 남미 5억 달러로 선진?개도국 시장 모두 부진하였다. 다만,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對 미국 휴대폰 수출은 WCDMA, 스마트폰 수출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25.1%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 침체가 신흥국 경제 부진으로 확산되는 등 불리한 대외여건은 당분간 IT 수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① 휴대폰(부분품 포함) : 22억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1.6% 감소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폰으로의 교체수요가 부진하였고, 신흥시장에 대한 중저가폰 판매도 동반 감소하여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
- (지역별)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對 미국(7.2억달러, 25.1%) 휴대폰 수출은 20%가 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對EU(3.7억달러, △56.7%), 對일본(0.5억달러, △24.9%) 등의 수출은 부진하였고, 부분품 중심인 對중국(홍콩 포함, 6.6억 달러, △6.4%) 수출도 감

- 한편, 남미(1.1억달러, △10.9%), 아프리카(0.2억달러, △27.4%), 중동(0.4억달러, △44.2%), 동유럽(0.5억달러, △57.1%) 등 신흥시장 수출도 동반 부진

② 반도체 : 15억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46.8% 감소

- D램은 업계의 감산과 5위업체인 키몬다의 파산 등으로 단가는 소폭 상승세의 반전이 있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36.7% 감소한 4.4억달러를 기록
-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SSD(Solid State Drive), 메모리카드 등 전방 산업의 시장 정체로 전년 동월대비 65.4% 감소한 1.0억달러 기록, '08.6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
-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5.9억달러, △47.8%), 일본(1.2억달러, △68.0%), EU(1.1억달러, △30.0%), 미국(1.4억달러, △27.9%) 모두 감소

③ 패널(부분품 포함) : 12.4억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40.7% 감소

- '경기침체→소비심리 위축→TV/모니터 등 완제품 판매부진→패널 공급과잉→패널 가격 하락→수출부진'으로 연결

* LCD(TV용 Full HD, 106.7cm, 달러) : ('08.6) 532.5 → (8) 482.5 → (10) 430 → (12) 345 → ('09.1) 325

-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6.8%)을 제외한 EU(△37.9%), 멕시코(△31.1%), 브라질(△86.2%), 폴란드(△40.7%) 등 주요 생산거점으로의 수출이 감소

④ 칼라 TV(부분품 포함) : 3억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46.0% 감소

- TV가격 하락*과 EU 등 주요 소비시장의 경기부진 영향으로 해외생산을 위한 TV부분품(2.5억 달러, △46.7%) 수출이 둔화되면서 TV 수출이 급감

* LCDTV가격(106.7cm, 달러) : ('08.8) 1,230 → (9) 1,168 → (10) 1,107 → (11) 1,100 → (12) 1,042

